

한국 전통 의생활문화에 나타난 속신 고찰(I)

朴 德 美 · 黃 春 燮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의상학과

A Study on Folk-Belief Related to Korean Traditional Costume Culture

Duk-Mi Park and Choon-Sup Hwa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Hee University

目 次

Abstract	2. 呪 術
I. 序 論	3. 占卜 · 豫兆
1. 研究 必要性和 目的	III. 衣料 生産過程에 關聯된 俗信
2. 研究內容 및 範圍	IV. 服飾製作 · 管理에 關聯된 俗信
3. 研究方法	V. 着裝行爲와 關聯된 俗信
II. 俗信의 類型과 概念	VI. 結論 및 提言
1. 禁 忌	參考文獻

Abstract

The present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the Korean's folk-belief related to Korean traditional costume culture which are handed down from ancestor and are known to present Korean society as of 1990'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understand emotion and the view of Korean people, and to understand the social roles of the costumes in Korean traditional society more deeply and more comprehensively.

The study was conducted by document analysis and interview.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erized as follows:

Folk-belief related to spinning(gilssam), sericultural industry and weaving are mostly enduced from the hope for good quality of work and acquisition of good skill of weaving. There has been also a belief that gilssam has a magic power to easy delivery and fecundity. Most Folk-belief of taboo related to clothing constraction proposed to people pay great care while they are sawing.

이 책은 199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기초적이며 광범위한 生活文化의 한 樣式이다. 俗信의 分類는 학자에 따라 분류하는 유형이 다르다. 즉 김의숙과 이창식²⁾은 禁忌, 呪術, 占卜, 豫兆와 風水信仰, 民間療法으로 분류하였으며, 김태곤³⁾은 禁忌, 呪符, 呪術, 占卜, 豫兆와 風水信仰, 民間療法으로 분류하였다. 또 김성배⁴⁾는 豫兆, 占卜, 禁忌, 呪術, 自然崇拜, 家宅神, 部落神, 巫俗으로 분류하였고, 최길성⁵⁾은 禁忌, 占, 呪術로만 분류하였으며, 최래옥⁶⁾은 禁忌, 勸獎, 吉兆, 凶兆, 解夢, 觀象, 療法, 風水로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占卜과 呪術은 재앙에 대처하기 위한 積極的 技術인 반면 豫兆와 禁忌는 消極的 知識으로 구별되고 있다. 한편 豫兆와 占卜은 未來를 豫知하고 대처하는 知識과 技術이고, 禁忌, 呪術은 불행의 결과를 豫防, 처리하는 知識과 技術이다. 또한 豫兆는 占卜의 基礎가 되며, 禁忌는 呪術의 事前措置에 해당한다.

1. 禁忌

1) 禁忌의 概念

禁忌는 ‘삼가한다’, ‘근신한다’, ‘피한다’는 말로서 宗教的인 慣習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接觸이나 言及이 禁止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우리들이 흔히 겪는 행동의 조심을 뜻한다고 본다. 조심하려는 심리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위반하였을 때 위험하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직접적인 반응이나 위험을 수반하기도 하지만 그 외 간접적으로 신의 노여움이나 呪術的인 메카니즘에 의해 벌을 받는다는 思考 構造도 포함된다. 이것이 수반될 때 적어도 禁忌라 할 수 있다.

또한 禁忌는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일어나는 심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신성한 곳이나 위대한 존재 앞에 있을 때에는 스스로 위험한 심리를 느끼게 된다. 또한 자신이 약해졌을 때도 위험한 심리에 빠진다. 다만 어떠한 상태를 위험한 상태로 보느냐에 따라 사회적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禁忌는 신이 있는 곳에서의 禁忌, 신성한 시간과 장소에서의 禁忌, 신체적으로 위험한 상태에서의 禁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를 테면 神이 오는 시간이나 神이있는 방향을 향한 禁忌를 지키는 것도 위험한 감정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또 出産이나 喪을 당했을 때는 당사자나 가족이 아주 약하고 위험을 느낄 때이다. 이런 때에 禁忌를 동반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成年式을 중심으로 상당한 禁忌를 행한다. 이는 어린이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중간적인 과정으로서 社會적으로 불안한 상태이며, 또 위험을 느끼는 상태라고 그 社會가 느끼기 때분이라 하겠다.

禁忌의 원리는 聖俗의 原理와 呪術의 原理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聖俗의 原理는 祭儀의 聖과 日常性的인 俗이 맞물려 人間生活을 意味 있고 潤澤하게 만든다는 原理이다.

聖俗의 原理는 禁忌가 不淨을 금하고 깨끗함을 확보하여 宗教的인 거룩한 성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수 있다. 祭儀는 거룩하고 깨끗한 곳에서 치뤄지며 祭儀를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사람 역시 깨끗하고 정결해야 한다. 그리고 祭儀는 日常生活의 일부가 아니고 때와 절기가 있다. 이 시기는 한 계절이나 한 해를 대표하는 날에 행해진다. 따라서 祭儀는 일회적인 시간성의 흐름을 거부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중지한 곳에서 치러진다. 즉 祭儀는 일회적인 시간성이 중지된 곳이고 일상적인 활동이 禁止된 비밀상성의 마당이다. 이러한 마당은 시간과 공간의 가역적인 작용이 중지된 곳으로 태초의 시공을 상징할 수 있다. 이 시공을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혼돈 Chaos의 상태로서 모든 삼라만상이 생겨나기 이전의 공간이다. 祭儀 의식의 금기가 확보하는 이러한 時空의 祭儀 儀式으로 강화되며, 祭儀 儀式을 통해 인간에게 전해진다. 그리하여 분명한 禁忌를 통해 이루어진 祭儀 효과는 祭儀가 끝난 뒤에도 祭儀의 주기 단위로 중요와 안녕을 확대 재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禁忌를 통하여 참여하게 되는 성스러운 혼돈의 祭儀式은 창조자의 창조 행위에 동참하는 것이며, 만물에 생기를 불어넣는 부활의 마당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동일한 장보기라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매매 행위에서는 값을 깎거나 흥정을 하고 시비가 붙지만 祭需을 장만하기 위한 구매에서는

물건값을 전혀 흥정하지 않을 뿐더러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시장에 갈 때에도 부정한 사람을 보면 부정 탄다고 하여 갖을 머리에 깊이 눌러 쓰거나 맑은 날에도 우산을 쓰고 시장에 간다. 이것은 흥정이라고 하는 商行爲가 나타내는 '속스러움'의 意味가 곧 不淨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聖과 俗의 原理는 祭儀 그 자체뿐만 아니라 祭儀 前後에도 참가자들의 生活面에 특별한 禁忌를 附與한다.

禁忌가 呪術의 原理나 聖俗의 原理에 설명되어진다고 해도 분명한 규칙성이나 틀에 의해 지배받기보다는 문화현상의 일부로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이러한 禁忌는 인간의 종교성에서 발생하여 신앙 생활은 물론 개인, 가정, 사회생활에 폭넓게 수용되어 있다. 그리고 禁忌의 영향력은 인간의 도덕성, 인격, 사회화 등에 파급효과가 있다. 또한 이러한 관념은 지속성을 가지고 윗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진다.

2) 禁忌의 類型

禁忌의 종류는 宗教에 관한 것, 사회에 관한 것, 개인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宗教의인 것은 宗教 行事와 관련하여 있거나 그것을 둘러싸고 지켜지는 관습으로서의 禁忌이다. 이것은 民俗信仰의 여러 면에서나 그 밖에 모든 高等宗教에서 보여지는 현상이다. 특히 宗教內에서 고리로 禁忌하는 음식물이나 행동 양식은 그 宗教를 만들어 낸 文化 存續을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논의도 있다. 불교에서 살생을 금하는 것도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의 삼라만상이 인간과 同苦同樂하는 어울림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다고 본다. 또한 불교의 이러한 생명관은 윤회사상과 결부되어 현재 인간은 前生에서나 來生에서 다른 짐승이었을 수 있다는 입장도 반영되어 있다.

마을 집단신앙에서는 여러 종류의 禁忌가 있다. 먼저 제관이 뿔혀지면 제관은 祭日까지 매일 목욕계제하며 정결하게 지낸다. 이때 제관은 부정한 행동을 금하는 禁忌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곳에 가는 것을 금한다. 즉 목욕계제는 앞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신

성한 것에 대해 몸을 조심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禁忌에 해당한다. 또한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피, 죽음, 고기, 여성의 경도나 여성과의 접촉 등이다. 그리고 祭官의 집이나 祭場의 주변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세 무더기씩 뿌려 놓는다. 이것은 모두 신성한 곳을 나타내는 징표로서 부정한 것이나 잡귀의 접근을 막기 위한 呪術行爲이다.

둘째, 禁忌의 社會的인 側面은 人間關係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집단의 관습으로 고착화된 것이다. 그 예로 우리의 言語 生活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언어는 日常生活에서 규범적으로 발설하지 않는 원칙이 적용된다. 性에 관련된 것, 불쾌한 사물에 관련된 것, 순위 어른의 이름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性에 관련된 言語는 보통 '물건'이라는 말로 대체되고, 불쾌한 것 가운데 동은 '뒤' '불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윗사람에 대해서는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친척관계에 의해 설정된 친족 명이나 직함을 사용하여 가친, 선친, 자당, 춘부장, 원장, 약장, 장인, 장모, 선생님, 영감님 등의 호칭을 쓴다. 이러한 예는 사회 관계에서 위계 질서에 의한 존경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셋째, 개인 자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禁忌이다. 즉 예상되는 재난을 피하고 건강한 生活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성황당을 지날 때 돌 세 개를 엮고 침 세 번을 뺄고 가면 재수가 좋다." "산신당 주위를 더럽히거나 神樹를 자르면 벌을 받는다." "손톱, 발톱을 깎아서 불에 넣으면 해롭다." "침을 자주 뺄으면 목이 달아난다." "생쌀을 먹으면 어머니가 죽는다."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禁忌는 개인생활의 나태함이나 방만함을 근절하여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건전한 生活을 유지시키려는 데 근거가 있다.

2. 呪術

1) 呪術의 概念

위기상황에 직면할 때면 그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간 이상의 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를 향해 기원을 하거나 바람의 성취를 의탁한다. 그것이 呪術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마음에 의해서 모든 삼라 만상이 어떤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지배되고 운행되는 것으로 믿어 왔다. 여기에서 인간들은 그 초자연적인 힘을 인간의 편으로 바꾸고 만들어 냄으로써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불행을 막아내고 그 대신 평화와 안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呪術은 인간에게 예상되는 위기와 맞부딪친 위험한 상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여러 수단 중의 하나이다.

2) 呪術의 類型

S.J. Frazer²⁾는 呪術의 종류에는 類似의 法則에 의한 同種呪術 혹은 模倣呪術, 類感呪術과 接觸의 法則에 의한 感染呪術, 傳播呪術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呪術은 宗教的인 성격을 지닌 것, 주위의 자연환경에 관한 것, 人間生活에 관한 것으로 三分할 수 있다고 하였다.

먼저 宗教的인 측면에서 呪術은 宗教가 구체화되기 이전단계로서 宗教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신을 상정하지 않고 막연한 절대자나 영혼을 뜻한다. 이것은 呪術이 時空을 초월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宗教性 가운데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서 '애니미즘(Animism)'의 반영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비인격적인 신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객관적인 대상이 상정되지 않기 때문에 呪術이나 의례에 의해서 효과를 나타낸다. 그리고 宗教처럼 적절한 형식이나 절차에 의한 기도 양식이나 의례가 축약된 채 강제 명령의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둘째, 自然環境에 대처하기 위해서 행하는 呪術이 있다. 인간은 항시 自然 災害에 대해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自然 災害의 극복은 農耕이나 生産의 豐饒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한다. 특히 비와 관련된 기우제, 풍요제와 정월 대보름에 과일나무의 가지가 와이(Y)자 형의 사이에 돌을 끼워 두면 과실이 많이 열린다는 '과일나무 시집 보내기' '벚가래대 세우기' 산간지방에서 가지를 많이 친 나무를 의양간 뒤에 세우고 곡식이삭과 목화를 걸어 두고 아이들이 새벽에 도는 일 등이 그 예가 된다.

또 어촌에서는 海上의 安寧과 豐漁를 위해서 행하는 주술이 있다.

셋째, 個人生活에 관한 것으로 祈子行爲를 꼽을 수 있다. 자녀가 없을 때 주로 부녀자들이 祈子 呪術을 행한다. 또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미 들어와 있는 나쁜 잡귀를 추방하는 것이 필요했다. 먼저 豫防 次元의 呪術로는「三國遺事」에 나오는「處容歌」의 예에서처럼 疫神의 出入을 禁하는 符籙이나 疫神의 禍상을 문지방에 붙이는 것이다. 그리고 치료를 위한 무당굿을 행하여 병자에게 들어와 있는 惡鬼를 追放한다.

3) 呪術의 機能과 目的

增殖呪術은 가지지 못했거나 가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서는 앞에서 살펴본 祈子行爲나 豐饒 儀禮에서 엿볼 수 있다.

除厄呪術은 이미 발생했거나 침범한 災殃을 除去하는 對抗呪術과 災殃이 오기 전에 막아내는 豫防呪術이 있다.

對抗呪術은 이미 災殃이나 병이 침범하여 고통 중에 있는 경우에 행한다. 그래서 병이 들면 잡귀나 악령이 침입해 들어 온 것으로 보고 그 원인을 찾아 악령이나 잡귀를 제거한다. 예컨대 객귀물림이나 푸닥거리를 하여 잡귀를 위협하여 물리치는 행위가 對抗呪術에 해당한다.

防禦呪術은 금줄, 황토, 호랑이 그림 등을 출입구에 설치하거나 符籙을 문에 지니고 다녀 아예 정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행위이다.

詛呪는 남에게 해를 가하거나 위해를 끼칠 목적으로 행하는 呪術이다.

3. 占卜 · 豫兆

1) 占卜 · 豫兆의 概念

占卜은 民衆의 生活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인간의 지능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사나 부지의 일을 呪術의 힘을 빌려 추리 혹은 판단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인간이 점을 치는 행위는 먼저 神意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다음으로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이다. 한 해가 가고 새

해가 밝아 왔을 때 인간은 그 세해에 전개될 일들을 미리 알고자 한다.

占卜은 미래에 발생할 어떠한 일의 前兆라고 믿고, 事前의 일을 통하여 미래의 일을 추측하거나 판단하였다. 事前에 앞으로 다가올 일을 徵兆로써 예견하는 것을 豫兆라고 한다.

因果關係로 豫兆와 占卜을 이해하자면 豫兆는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因이며, 占卜은 結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즉 占卜은 因으로부터 果를 미리 알아내는 기술이라 할 수 있다. 占卜의 기술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중들의 生活 속에서 오랜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지식의 소산이다.

占卜이 未來事에 대해 적극성을 띤 것이라면 豫兆는 소극성을 띤 것이다.

2) 占卜의 類型

非歲時的 占卜과 歲時的 占卜이 있다. 自然現象에 의한 占卜, 人事에 의한 占卜, 神祕占, 作卦占, 觀象占이 非歲時的 占卜에 해당된다.

歲時的 占卜에는 正初의 占卜, 立春의 占卜, 대보름의 占卜, 2월의 占卜이 있다.

Ⅲ. 衣料 生産過程에 關聯된 俗信

1. 목화경작

작물에도 性이 양성과 음성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기서 목화는 陽性으로 분류된다. 목화를 陽性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 작물이 습한 땅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화를 종자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늦어도 서리가 내리기 이전인 입추까지는 거둬들여야 하는데 陰의 象徵인 서리를 맞으면 陽의 本性이 훼손되어 發芽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한다.

목화의 發芽와 生育을 잘 시키는 민속 방법으로는 그 종자를 오줌으로 버무린 재에 묻혀 보관하는데 이때 쓰는 오줌은 여자 오줌은 음성이기 때문에 안되고 반드시 양성인 남자 오줌이어야 한다.

또 목화씨를 뿌릴 때에는 初潮를 보기 전의 소녀나 이마 폐경기에 접어든 할머니들이 뿌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남자로 하여금 파종을 하도록 하

였다. 이같이 성기능을 보유한 여인을 기피한 이유도 목화의 本性이 陽性이기 때문에 이성의 秘力이 작용하면 어딘가에 결함이나 부정이 생긴다는 呪術的인 사고방식에 기인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목화씨는 사집보내지 않는다. 즉 옮겨 심으면 죽는다고 하여 기피하였다고 한다.⁶⁾ 목화에 대한 俗信 중에 “호랑이 날이 정초에 일찍 들면 그 해 목화가 잘 된다”는 말이 있다. 이는 호랑이는 동물의 왕으로 陽氣가 많이 깃들인 동물로 생각하여, 한해를 시작하는 時點에서 양기를 지닌 호랑이와 목화를 유감시킨 것으로 보인다.

2. 길 씬

1) 삼

“한 필의 울을 삼는데 한 바가지 피가 마른다”는 속담이 있다. 젖먹이는 아이가 있는 아낙은 삼을 삼는 일을 하지 않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는 울 삼는 동안에 많은 타액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젖의 양이 줄어들다는 믿음에서 형성된 관습이 아닌가 싶다. 곧 “피가 마른다”는 것은 울 삼는 작업이 몹시 고되다는 것과, 몸의 물기가 마른다는 것을 象徵的으로 표현한 말일 것이다. 이는 “모시 다섯필 울 삼는데 무릎이 부어 오르고 열필 울 삼는데 무릎에 피가 나며 스무필을 삼는데 무릎살이 남의 살이 된다”는 속담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삼을 질 때에 물을 떠오는 사람은 반드시 깨끗한 사람이어야 하고, 만일 부정한 사람이 물을 떠다 부으면 삼이 안 익는다는 俗信이 있었다. 또한 임신중인 사람의 입으로 삼을 이었던 것을 함께 넣어 썰면 부정이 있다고 하여 삼을 쌓은 밑에 감자 알을 넣기도 하였다. 또 부정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을 처음 떠 온 사람이 옆에서 있는 사람에게 “부정이야” 하면서 물을 끼얹기도 하였다.

2) 무 명

밭에서 딴 목화송이는 지붕에 올려 가을벌에 잘 말린다. 忠清道 내륙지방에서는 이 목화송이를 말릴 때부터, 남자 옷을 만드는 목화와 여자 옷을 만드는 목화를 아예 구분하여 男服用은 陽

干하고 女服用은 陰干을 한다.⁹⁾ 男服用 목화를 벌에 말리고 女服用 목화를 그늘에 말린 뜻은 베의 질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陰陽思想에 의한 呪術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곧 옷은 육체와 밀착된 것이기에 陰體인 女體에는 陰干에 의해 陰力을 보강한 목화로 옷을 짜 입힘으로써 아들을 잘 낳는다고 믿었고, 또 陽體인 男體에는 陽干에 의해 陽力을 보강한 목화로 옷을 짜 입힘으로써 양기를 들울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

그리고 정월 토끼날 새로 뽑은 실을 툇실이라고 하는데 이 실을 주머니 끝에 달아매어 재앙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날 무명실을 짜서 옷을 지으면 그 사람의 병이 길다고 해서 옷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베를 애아 베를 짜는 시늉을 하여 장수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기도 하였다.¹⁰⁾

3. 양 잡

마을에 따라서는 선잠신에 제사 지내는 司祭의 역할을, 그 마을에서 가장 베를 잘 짜는 할머니가 맡기도 했다. 제삿날이 정해지면 이 할머니는 보름 동안 외출을 금함으로써 부정을 소외시킨다. 일체의 喪事나 婚事의 행령이 이 여사제의 집안을 지나가서도 안되고 또 그 마을에서 보름 동안은 살생이나 짐승 암붙이는 일을 금한다.

이같이 신성을 보장받고 제사를 지내며 제사가 있는 날 밤에는 ‘손물림’이라 하여 시집갈 나이의 처녀들이 곡식 몇 되씩을 퍼 가지고 이 여사제를 찾아간다. 그러면 이 여사제는 그녀의 손바닥을 스치는 ‘손물림’ 儀式을 배풀어준다. 곧 손물림은 선잠신 西陵氏의 길쌈 재주를 呪術적으로 물려주는 의식인 것이다. 손물림을 받으면 길쌈 재주를 물려받은 것으로 믿었고, 옛 한국 처녀들의 폐농을 수 없는 결혼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上元날 농가의 부녀자들이 쌀을 썬어 그 가루로 쌀가루 불을 만들어 손가락에 문혀 벽애 누에 고치 형상을 그려 놓았는데 이것은 양잠이 잘 되기를 비는 呪術信仰이다.¹¹⁾

누에는 예민하여 부정적인 것이나 뱀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초상집 갔다 온 사람은 누에 키우는 방에 들어와서는 안 되며, 장을 다녀서도 안되고, 이슬을 먹은 뽕을 따다 먹이는 것도 금기시 하였다.¹²⁾

IV. 服飾製作 · 管理에 關聯된 俗信

1. 服飾製作에 關聯된 俗信

“아래옷을 고쳐서 옷웃으로 만들어 입으면 불길하다” 하였다. 이는 상의가 하의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의복을 지을 때에도 序列意識을 가지고 지어야 함을 意味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모든 사물이나 사리를 서열적으로 파악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에 그 서열이 정해져 있게 마련이다. 즉 인체를 두고도 부위에 따라 상체로 올라갈수록 서열이 높고 하체로 내려갈수록 서열이 낮다. 따라서 그 육체의 부위에 부착하는 의류도 그 위치에 따라 서열이 높고 낮아진다. 아울러 옷에는 서열의식뿐만 아니라 이전에 접촉했던 부분의 呪力이 머물고 있어서 계속 힘을 발휘한다는 類感呪術로도 해석된다.

“여자의 옷을 고쳐서 남자의 옷을 만들면 재수가 없거나 간사해진다.”

“치마로 남자 옷을 만들면 언짢은 일이 생긴다.”

“남자 옷을 만들 때 그 옷감을 여자가 넘어 다니면 재수 없다”¹³⁾ 하였다.

이들은 男尊女卑 思想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感染呪術으로써 타인의 화신이 나와 공존하는 것이 되므로 원천적으로 금기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불깃으로 딸의 치마를 해 주면 딸이 오래 산다” 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이 好事多魔를 기피하여, 惡鬼로 하여금 속임수에 빠지게 하는 呪術的 함정을 이용한 것이다. 즉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미 체취가 스민 이불깃은 새롭지도 화려하지도 않다는 그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性이 성숙할 무렵의 여자는 외부악이 침범하기 쉬운 약하고 순수한 존재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惡鬼는 이처럼 약한 체질에 잘 붙으며 또한 낡은 것보다 새 것을 더 좋아하고 순수한 것보다 고운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러므로 처녀에게 새 옷이나 고운 옷을 입힌다는 것은 악귀에게는 좋은 일이다. 그래서 性에 눈 뜬 무렵의 처녀에게 새 옷이나 고운 옷을 해 입히지 않는다는 俗信이 생겨났다. 즉 惡鬼가 불을 소지를 없애는 呪術이 복합되어 있

다고 생각된다.

“치마를 거꾸로 주름 잡아 입으면 나쁘다.”

“정월 초하룻날 치마 주름을 잡으면 그 해 내내 근심이 생긴다” 하였다.

치마 주름은 아마의 주름으로 직결된다. 즉 아마의 주름은 근심의 표현으로 바로 치마주름이 그대로 근심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뉘때 어린아이의 치마에 주름을 잡지 않은 이유도 그 아이가 일생 동안 근심없이 살아가기를 기원한 때문이다. 또 치마 주름은 왼쪽으로 잡는데 왼주름은 아들을 나타내고 오른주름은 딸을 나타낸다. 즉 우리 俗信과 관련된 것으로 아이를 낳는 아가집은 둘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아가집은 아들을 나타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딸을 낳을 아가집이라 여겼다. 따라서 그런 의도에서 예비 임부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주변의 呪術的 요소를 왼쪽 지향으로 하는 것처럼 주름도 왼쪽 지향으로 하였다. 그리고 치마 주름을 잡기 시작하면 끝까지 잡아야지 주름을 잡다가 중간에 놓으면 근심이 그 틈에 새어들어 온다고 하였다.

“아이의 옷에 깃을 달면 아이가 자라서 어른들 말하는데 말참견한다고 해서 깃을 달지 않는다.”¹⁴⁾

“똥띠와 복주머니는 수명이 길고 복이 많으라고 매 준다.”

“百日옷은 百日각 옷감을 얻어다 百日고리를 만들어 입힌다.”¹⁵⁾

“베넛저고리는 누벼서 만드는데 百번 누비면 아이가 장수한다고 한다”¹⁶⁾ 하였다.

실은 장수를 상징하기도 했다. 실이 길다는 屬性을 長壽에 類感시킨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아이가 뉘상에 차리는 물건들 중에서 실을 잡으면 長壽를 豫言받았다. 갓난아이의 저고리에는 매듭이나 옷고름을 쓰지 않고 실로 둘러매는 이유도 긴 실의 길이가 長壽를 가능케 한다는 믿음에서 기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호남의 산간지방에서는 누비바지를 ‘命바지’라고 한다. 이 누비바지가 命바지가 되는 이유는 그 누비는 울음이 長壽를 상징하는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비는 울의 폭, 누비는 맘의 길이에 따라 그 누비에 소요되는 실의 길이에 큰 차이가 난다.

촉촉하고 조밀할수록 실이 많이 들고 실이 많이 든다는 것은 실의 길이가 길다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실이 긴 만큼 長壽의 유감도 높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소요된 실의 양에 따라 ‘세 꾸리 명바지’ ‘다섯 꾸리 명바지’ 하는 명칭이 붙어 꾸리의 수에 따라 효도의 분량을 측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실은 베짜고 옷을 만드는 것이 외에 象徵的 用度로도 널리 쓰여졌다.

“윤달든 해에 壽衣를 해 놓으면 좋다.”

“하루에 壽衣를 만들지 않으면 저승문이 열리지 않는다.”¹⁷⁾

“壽衣를 모시로 하면 자손들에게 흰머리가 많이 생긴다.”¹⁸⁾

“壽衣를 만들 때 실을 이로 끊으면 치아가 오래 가지 못한다.”

“동네 초상날 때 바느질하면 원귀가 된다.”

“壽衣를 만들 때 실매듭을 짓지 않는다.”

“壽衣를 뒷바느질하게 되면 그 고가 멧혀서 환생치 못한다.”¹⁹⁾

“실제어줄 때 실끝을 맺어 주면 저승가서 매듭이 풀릴 때까지 싸움한다.”

“실제어줄 때 실끝을 맺어 주면 맺어 준 사람의 무덤자리를 빼앗긴다.”

“바늘에 실 꿰어 주고 실매듭을 지어 주면 저옥에 가서 풀어 달라고 한다” 하였다.

바느질이란 행위는 매듭과 같은 폐쇄 행위로, 출생 혹은 천당으로 가는 길을 트는 喪中 같은 개방성을 지닌 시기에는 禁忌했다.

“바늘을 벽에다 꽂아 두면 남편이 마른다”고 하였다.

벽의 바늘이 사람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늘 관리를 정성들여 하라는 의미의 禁忌로 추측된다. 또 유행병이 번지고 있을 때 부인네들은 바느질을 하거나 바느질하다가 만 바늘을 벽에 꽂아두지 못하도록 하는 禁忌가 보편화되어 있었다. 이 禁忌도 靈媒體로서의 실의 象徵的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병인을 靈的 存在인 病鬼로 이해하였기에 바느질을 하거나 실이 늘어진 바늘을 벽에 꽂아 늘어 두면 허공을 헤매던 病鬼가 그 媒體를 따라 바느질하는 옷이나 이불 속에 잠입하고, 또 벽에 늘어진 실을 따라 안으로 기어드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누워서 실을 가지고 놀면 병을 오래 앓다가 죽는다.”

“드러 누워서 바느질하면 긴 병 앓는다”고 하였다.

바른 자세로 집중해서 바느질을 해야 하는데, 산만한 자세로 바느질을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병을 앓게 된다”는 치명적인 말을 함으로써 바른 자세를 유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실은 수명을 상징함으로 누어 있는 것을 긴병으로 유감(類感)하여 주의를 요하는 의미로 추측된다.

“실폐에 실이 하나도 없으면 부모가 헐벗고 죽는다”고 하였다. 이는 실이 없는 바늘은 보관이 매우 위험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바늘에 실이 길게 꿰어지면 수명이 짧다.”

“바늘에 실을 너무 길게 꿰면 멀리 시집간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실의 길이에 유감한 속신으로 해석된다.

“은진미득을 찬 실로 옷을 해 입으면 오래 산다” 하였다.

비단 은진미득뿐만이 아니라 미득은 한국 민중의 祈願 대상으로 祈了와 長壽의 祈願 대상이 되었다. 미득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아들을 낳게 하는 呪力을 얻기에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실을 빌어 그 呪力의 導體로 이용하였다. 실로 미득을 찬다는 행위는 미득의 축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呪力의 導體인 실을 미득에 접촉시킴으로써 그 呪力을 導體에 옮겨 붙게 하는 감염 행위인 것이다. 충청도에는 ‘미득실 효도’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미득의 呪力을 감염시킨 실로 노부모의 옷을 기워 드림으로써 부모의 장수를 기원하는 행위를 뜻한다.

2. 服飾 管理에 관련된 俗信

1) 洗 濯

“밤에 빨래 방망이질을 하면 집안 망한다.”

“동네에 굶은 일 있으면 방망이질 않는다.”²⁰⁾

“이웃에 초상났을 때 빨래하면 불길하다.”

“아침 일찍이나 해가 넘어갈 때 빨래를 두들기면 동네가 망한다.”

“밤에 빨래하면 가난해진다.”

“해진 뒤에 방망이질하면 동네 늙은이 죽는다”

”고 하였다.

원래 빨래에는 방망이질이 수반되고 방망이질은 소음이 있어서 남의 숙면을 방해하고 굶은 일로 침울해진 동네사람들의 기분을 언짢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 혹은 조용함이 필요한 때에 방망이 소리로 인한 소음 공해를 피하자는 意味인 것으로 추측된다.

“사부모와 남편의 옷은 반드시 머느리가 한다.”

“속옷과 겉옷, 웃옷과 아래옷, 어른옷과 아이옷, 여자옷 남자옷을 구분해서 뵈다.”

“빨래를 할 때 어르신네 옷을 먼저 뵈는데 상의와 하의, 속옷과 버선을 구별해야 한다” 하였다.

우리 민족은 옷을 입은 주인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였다. 그래서 빨래를 할 때도 항상 長幼有序, 男尊女卑, 上下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애 날 때 이웃집에서 잣물 빨래하면 어린애에게 부스럼 난다.”

“산후 3일이 되기 전에 빨래하면 잣물꽃이 핀다.”

“어린애 낳고 빨래를 삶으면 불길하다.”

“새색시가 석달안에 방망이질하면 삼년 안에 방망이 들고 나간다”고 하였다.

이웃들은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갓 시집와서 매우 불안하고 힘이 들 새신부의 심정을 배려하자는 뜻으로 생각된다.

2) 乾 燥

“지붕 위에 빨래를 널면 나쁘다.”

“여자 속옷을 울타리에 널면 나쁘다.”

“여자 속옷을 울타리에 널면 밀알이를 한다.”

“여자 속바지는 식구들 눈에 띄지 않도록 뒤걸에서 말린다” 하였다.

울타리는 집안과 집밖의 경계이며 그곳에 여자의 속옷을 낸다는 것은 여느 행인에게나 속옷을 노출시키는 것이 되므로 기피한 것 같다. ‘밀알이’란 국부통을 뜻하며 곧 속옷을 남이 보면 그 속옷이 맞닿는 그 옷 주인의 체취에 공감하여 국부를 앓게 된다는 것이다.

“널어놓은 빨래가 집밖으로 날아가면 그 옷의 입자가 병을 앓거나 죽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빨래를 허술하게 다루는 행실을 다스리는 뜻도 되지만 옷에는 그 입는 사람의 靈的 동일성이 呪術的으로 스며 있는 것에서 금기시 한 것 같다.

“장례행렬이 지나가면 부정타기 때문에 우물뚜껑을 닫고 빨래를 걷는다.”⁷²⁾

“조상님 흰옷을 널면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 하였다.

이는 아마도 初喪時는 주로 누런 베로 된 옷을 입은 게 보통이지만 흰옷을 입기도 한다. 그래서 弔問客들이 잘못 찾을 수도 있으며 또한 喪家에 대한 예의에서도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3) 푸 새

“뜨거운 풀을 빨래에 먹이면 민망한 일이 생긴다” 하였는데 이는 뜨거운 풀을 하면 쉽게 풀이 죽는다는 비실용적인 작업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먹던 밥으로 빨래에 풀을 하면 자식이 출세를 하지 못한다” 하였다.

밥풀은 입자가 굵지 못하여 빨래가 곱게 손질되지 않기 때문에 禁忌時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풀을 많이 먹으면 바보가 된다” 하였다.

풀은 식용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풀하던 그릇을 씻지 않으면 남편이 죽는다” 하였다.

푸새한 뒷정리를 제때에 깨끗이 하라는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푸새에 있어서의 禁忌는 주로 생활의 합리성추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4) 다듬이

“밥 먹을 때 다듬이질하면 말을 더듬는다.”

“식사 중에 다듬이질하면 귀머지다.”

“다듬이들 위에 먹을 것을 놔다 먹으면 귀머지가 된다” 하였다.

다듬이들 위에 이물질을 흘릴시는 빨래가 정갈하지 못하게 되므로 다듬이 들을 깨끗하게 다룬다거나 다듬이질 역시 정신 집중을 하여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듬이들을 빨래 없이 두드리면 남에게 오해산다” 하였다.

불필요한 소음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주의에서 다듬이 용구를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고 소중히 다루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다듬이 풀을 베고 누우면 입이 삐뚤어진다.”

“다듬이들 위에 앉으면 입이 삐뚤어진다.”

“여자가 다듬이들 위에 앉으면 남편에게 쫓겨난다.”

“여자가 다듬이들을 베고 누우면 소박을 맞는다.”

“다듬이들을 베고 자면 혼인 이야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딸이 다듬이들 위에 앉으면 시어머니 눈밖에 나고 아들이 다듬이들 위에 앉으면 장모 눈밖에 난다.”

“임신부가 다듬이들 위에 올라 앉으면 무거워서 아이 낳 때 힘이 든다”⁷³⁾

하였다. 이는 다듬이들은 차기 때문에 여자는 冷, 남자는 風을 염려하는 意味로서 건강 측면에서의 지체라고 본다.

5) 다리미질

“다리미질을 골고루 하지 않으면 남의 입김에 오른다.”

“베를 때미 날개처럼 곱게 다리는 것이 좋다” 하였다. 이는 사치를 위함이 아니라 다리미질을 할 때 정성들여서 하여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리미질을 할 때 웃고름부터 다리면 빌어먹는다.”

“손수건이나 수건을 다리면 낮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된다.”

“버선에 다리미질을 하면 소박맞는다” 하였다.

다리미질에서도 序列意識은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서열이 가장 낮은 버선이나 손수건을 다른 옷처럼 다리미질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식구조상 맞지 않는다. 또한 옷중에서도 웃고름은 낮은 서열로 취급하여 맨 나중에 다리미질을 하여야 한다.

V. 着裝行爲와 關聯된 俗信

1. 冠帽 着裝

“망건을 삶은 물을 마시면 流産이 방지된다.”
24)

“갓을 삐뚤게 쓰면 廢棄한다.”

“갓을 허술하게 돌리면 위신이 떨어진다.”

“모자를 쓰고 밥을 먹으면 가난해진다” 하였다.

이렇듯 단정하지 못한 용모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원된 속신도 있고, 序列意識에서 비롯된 속신도 있다. 우리 민족의 가치관에서 볼 때 본능적인 욕구 수행 행동은 행동 중에서도 저질이며 서열이 낮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를 태면 배설하는 행위, 잠 자는 행위, 성행위, 돈으로 타산하는 행위 등은 서열이 낮은 행위로 남이 보지 않는 공간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다. 먹는 행위 또한 대표적인 본능에 의한 욕구행위로서 서열이 낮다. 이렇게 서열이 낮은 식사 행위를 하면서 서열 높은 존엄의 상징인 모자를 쓴다는 것은 서열 전도요 가치관의 불균형일 수밖에 없다. 밥 먹는 행위 이외에도 화장실 가는 행위, 갓 쓰고 돈 거래하는 행위도 금기시 했다.

또한 소변을 볼 때도 모자를 벗어 놓고 왼손을 써서 용변을 보았다. 이는 오른손은 왼쪽보다 서열이 높기 때문에 서열이 낮은 왼손을 써야 된다는 합리성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꿈에 복두를 쓰면 장가를 간다.”

“꿈에 사모를 쓰면 좋다.”

“꿈에 갓쓰고 가마를 타면 벼슬이 높고 위대해진다.”

“꿈에 冠을 쓰고 수레를 타면 벼슬을 한다.”

“꿈에 冠帽를 벗으면 부끄러운 일이 생긴다” 하였다.

冠은 그것의 속성상 벼슬을 상징하고 있으므로 관을 착용하는 꿈은 길몽으로 풀이되었다. 반면 관을 벗는 꿈은 흉몽으로 여겨졌다. 여기서 부끄러운 일이란 곧 情事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꿈을 낫는 일은 두분불출하고 집안에 들어앉아 있었다.

2. 衣服 綈裝

“송사 때나 시험을 치러 갈 때 갓난아이 때의 옷을 몸에 지니고 가면 재수가 좋다” 하였다.

갓난 아이의 옷이 呪力을 갖는다는 생각은 탄생이 갖는 차원의 변이에 呪力을 인정하는 것이

다. 탄생은 無의 차원으로부터 有의 차원으로의 변이이며, 어둠의 차원으로부터 밝음의 차원으로의 변이요, 죽음의 차원에서 삶의 차원으로의 변이이다. 이전에 없던 것이 생긴다는 소박한 탄생 철학을 유감시켜 낙제에서 급제의 呪力을 얻고, 실패에서 성공의 呪力을 얻으며, 損財에서 횡재를 얻는 呪力을 지닌 것으로 믿었다고 생각된다.

“남의 옷을 먼저 입어 보면 대신 죽는다.”

“남자가 여자옷을 입어 보면 재수 없다” 하였다.

옷은 육신과 가장 가까이 접하는 물건이기에 자신과 동일화된 자신의 화신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따라서 내 옷을 남이 입고 남의 옷을 내가 입는다는 것은 感染呪術에 의해 나의 화신, 남의 화신이 나와 공존하는 것이 되므로 근본적으로 금기시 하였다고 본다.

“아름다운 옷을 입기를 좋아하면 자손이 귀하다.”

“옷투정 하면 가난하게 산다.”

“기운 옷이나 더러운 옷을 입으면 은혜를 얻는다.”

“남편의 떨어진 옷으로 産兒의 옷을 만들어 입히면 아이가 옷셈을 덜 한다” 하였다.

옷의 사치를 금하는 것은 우리 조상의 安貧守分 철학에서 필연적인 것이었다. 우리 나라 가족 구조에서 자손의 많고 적음은 家門存亡의 관건이기에 자손이 귀하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한 말이다. 이러한 속신들은 사치를 금하고자 하는 사회적 의지가 얼마나 강하였는지를 보여준다 하겠다.

“安産을 위해서 남편의 옷을 암산부가 입고 해산을 한다.”

“安産을 위해서 남편이 부인의 치마를 쓰고 지붕 말기에 올라간다” 하였다.

음양역병으로 남편의 뜻은 남성의 힘을 상징하고 그 상징적 힘을 힘이 부족한 産婦가 전해받는다는 주력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屆喪 옷을 물려받으면 물려받은 자의 집에 액운이 온다.”

“죽은 사람의 의복이나 신을 사용하면 재수 없다” 하였다.

아무리 없이 살아도 거상 때의 옷은 새로 장만

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죽은 사람의 물건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꺼려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입은 사람의 생명체에 있는 원자질과 영혼이 그 옷에 깃들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우리 나라의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인 초혼의 습속에서 이 옷과 영혼의 呪術의 관계를 엿볼 수가 있다. 임종에서 숨이 끊어지면 죽은 사람이 생전에 입었던 옷저고리를 들고 집의 동쪽으로 부터 지붕에 올라가 북쪽을 향해 그 저고리를 흔들면서 '모관모싸복!' 혹은, 벼슬과 이름을 부르거나 벼슬이 없으면 이름만 불러 '돌아오시오!'를 세 번 계속하여 부른다. 이를 "흔부르기"라고 한다.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그 혼백은 육체로 부터 떠나가는 혼백을 불러 모셔야 한다. 이때 돌아오게 하는대는 혼백만 끌어들이어 어떤 유인력이 있어야 한다. 살았을 때 생명의 원자질과 동일시 된 것으로 죽은 사람이 살았을 때 입었던 옷을 들어 흔들면 혼백은 그 동일시된 것 때문에 못 떠나가고 되돌아온다는 말상에서 이 死者의 저고리를 흔드는 흔부르기 習俗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혼백을 불러들인 다음에는 그 저고리를 둘둘 감싼 다음 지붕 밑으로 떨어뜨리면 그 아래서 한 사람이 저고리를 받아 들고 死者의 가슴 위에다 었는다. 이 유인해 온 死者의 혼백이 神主가 되어 마치 살아 있을 때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된다. 이것은 옷과 그 옷을 입은 생명체와 동일시하는 呪術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되었으리라고 이해할 수 있다.

"꿈에 긴 두루마기를 입으면 복이 온다."

"꿈에 아내가 남자 옷을 입으면 귀한 아들을 낳는다."

"꿈에 아내가 비단옷을 입으면 귀한 아들을 낳는다."

"꿈에 갑옷을 입고 칼을 가지면 좋은 벼슬을 한다."

"꿈에 의복을 마르고 상복을 입으면 대길을 한다."

"꿈에 도롱이를 입고 춤추면 기쁜 일이 생긴다."

"진흙에 옷을 더럽히는 꿈을 꾸면 재산을 이룬다."

"누더기 옷을 입은 꿈을 꾸면 먹이 생긴다" 하

였다.

의류에 관련된 꿈은 대체로 길몽 편이 흉몽 편보다 많다. 이 꿈의 판단에는 도덕적 가치관의 영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 본능적인 욕망과 인위적인 도덕은 대립된 개념이었다. 욕망이 크면 도덕이 작아지고, 도덕이 크면 욕망이 작아지는 그런 반비례의 대립 개념이었다. 욕망이 클수록 소인이요, 도덕이 클수록 군자가 된다. 그러기에 욕망을 극소화시키는 安貧知足 思想이 한국인에게 보편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꿈에 옷을 누추하게 입은 상태는 길몽으로 풀이되었고 그 상반된 판단이 바로 이같은 해석을 낳게 했다. 現實에 좋은 것이 꿈에는 나쁘고, 現實에 나쁜 것이 꿈에는 좋은 것으로 여기는 이상반된 판단은 우리 옛 韓國人으로서 하여금 幸·不幸의 가치판단 기준을 모호하고 애매하게 했으며, 그 같은 완충 정신시대에 살으로써 행복이나 불행에 둔감하게 되었다.

3. 장신구

"눈병났을 때 옷고름에 가락지를 차면 낫는다."

"아이를 순산하기 위해서 은반지를 빨리 빼 놓는다."

"유산방지로 은가락지, 은비녀 삶은 물을 마신다."

"產母가 어린애를 낳을 때 은가락지를 삶아 그 물을 마시면 순산한다" 하였다.

은가락지는 여성의 정조를 意味하는 것으로, 가락지는 함부로 빼지 못하는 물건이었다. 반드시 가락지를 빼 때는 본인이 빼야 했으며, 가락지를 손가락에서 빼듯이 술술 나오라는 뜻으로 은가락지를 삶아서 그 물을 먹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해석은 반지는 結節로 옷고름과 더불어 무언가 묶어 두는 행위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폐쇄된 자궁으로부터 개방되는 행위다. 즉 반지는 순산하는데 방해되는 呪術的 要因이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꿈에 허리띠를 두르면 벼슬이 생기거나 오르고, 저절로 띠가 풀리면 대길하다고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관복의 상징인 帶가 그대로 꿈에 적

용된 경우이다. 한편,

“꿈에 여자의 허리띠가 저절로 풀리면 뜨거운 일이 생긴다”

고 하는데, 뜨거운 일이란 곧 情事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꿈을 꾸 낯은 두문불출하고 집안에 들어앉아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여자가 띠를 풀다는 것은 解衣를 뜻하는 행위로 망측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띠는 폐쇄성 주술과의 관련성이 많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4. 버선과 신

“침의 방에 남녀가 함께 있을 때 몰래 접근하여 침의 신발을 대문 쪽을 향하게 놓아두면 정분이 떨어진다.”

“침을 떼기 위하여 침의 신발을 훔쳐서 숨긴다.”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짚신이나 버선을 훔쳐 와서 코 부분을 불에 태워 먹으면 상사병이 낫는다”.

“침의 짚신을 불태워 먹으면 침이 떨어진다” 하였다.

옛사람들은 이처럼 신발이 사랑을 되찾는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었으며, 침의 교태가 침의 짚신을 태워 먹은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했다.

“꿈에 짚신을 신으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

“꿈에 버선을 만들면 자손이 번창한다.”

“정월 대보름날 용마루에 버선본이나 흰 깃발을 쫓는다.”²⁵⁾

“방안에서 신발 신고 다니면 초상난다.”

“꿈에 신발을 보면 애인을 만난다.”

“꿈에 신발을 잃어버리면 세상사가 팍팍하다.”

“꿈에 신발이 딱 맞으면 새 장가를 간다.”

“꿈에 신 벗고 허리띠를 매면 흉한 일이 생긴다.”

“짚신을 우연히 거꾸로 신으면 사위를 본다.”

“버선을 이고 가면 죽어서 그 사람의 무덤을 여우가 판다.”

“産母의 安産을 위해서 남편 신발로 임부배를 문질러 준다.”²⁶⁾

“産母가 安産을 위해서 신발을 거꾸로 신고 변

소에 가서 앉는다.”²⁷⁾

“男便이 신발을 신은 채로 산실에 들어와 원발로 산모의 허리를 3번 밟으면 허리가 아프지 않다.”²⁸⁾

“중병에 걸려 치료가 되지 않을 때 닭에 환자의 옷을 입혀 짚신과 함께 환자의 집에서 약 5·6町步 떨어진 인가 없는 들뜬에 버린다.”(황해도)²⁹⁾

“지붕 안에 서식하는 짚신벌레를 말려 두었다가 발열할 때마다 음식물에 혼합해서 복용하면 말라리아 병이 즉시 낫는다.”(함북)

“病氣 예방을 위해 오른쪽 짚신을 천장에 걸어 놓는다.”(평남)

“긴 장대 끝에 한쪽 짚신을 걸어 마당에 세워 두었다가 그 짚신을 태워 떡을 썰 먹으면 유행성 감기의 전염을 면한다.”(강원도)

“콜레라가 유행할 때 가족의 신발을 왼쪽으로 곧 새끼줄에 끼워서 대문 양쪽 기둥에 매어 두면 콜레라 감염으로부터 예방된다.”(강원도)

“버린 짚신을 주어다 문에 걸어 두면 악성 유행병을 예방할 수 있다.”(경남) 하였다.

우리 조상들은 짚신에는 강한 呪術力이 있다고 믿었다. 짚신은 사람의 발 밑에서 두고두고 밟히면서 먼 곳을 왕래하였고, 진창이나 자갈밭길 활 것 없이 험한 곳을 밟고 오가는데 사용되기에 아주 강하고 질긴 저항력이 생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질병이 돌 때는 마음 입구에 금줄을 치고 짚신을 나무에 묶어 두기도 했으며, 집 대문에다 짚신을 매달아 짚신의 저항력으로 病魔를 쫓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 처녀가 죽으면 그 어머니는 처녀가 생전에 신고 다녔던 짚신을 동네 총각에게 들고 가 닦아서 헤질 때까지 신어 주기를 간청하고, 또 총각도 신어 주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었다.³⁰⁾

버선은 발에 신는 것으로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밟고 밟힌 것으로 부정이나 잡귀를 막는다는 呪術的인 意味로 해석되었다. 그러므로 버선에 대한 꿈도 길몽으로 졌다. 우리 민속에서 짚신이나 가죽신 같은 발에 신는 신발은 여성을 상징하였다. 전염병이 번질 때 짚신을 동네 입구 신목에 걸어 둔다든지 사립문 위 등에 쫓아 둔다든지 짚신을 쥐어 분전에 걸어 놓은 뜻은 바로 콜레라,

학질 같은 男性의 病鬼에게 象徴的인 性을 베풀므로써 해코지를 면하려는 呪術 예방인 것이다.

신발이 여성을 상징하게 된 것도 아마도 신발을 신는 발이 남성의 행위가 된 것이다. 이같은 개념의 연장으로 역시 발에 신는 버선도 여성의 성기를 유추했음직 하다. 그러나 버선의 경우는 신발보다 깊다는 그 구조적 특성과 오부에 둥글고 큰 공동이 있다는 형태적 특성때문에 성기가 아니라 성기와 연결되어 있는 애기보(자궁)를 연상, 상징했음을 알 수 있다. 곧 버선은 여성의 본질이기에 버선을 소홀히 다루거나 버선의 일부분을 떼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금단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또 우리 민속에 자손이 번창한 부녀자의 버선을 물려 신으면 역시 자손이 번창한다 하여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라에게 또는 친정어머니로부터 딸에게로의 버선 물림도 이 버선이 자궁을 상징한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손이 귀한 집에서는 손이 번창한 마님이 신었던 버선의 숨을 얻어다가 기워 신기도 하였다.

꿈에 버선꿈을 꾸거나 버선 만드는 꿈을 꾸면 자손이 대길한다는 해몽의 연유도 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VI. 結論 및 提言

韓國衣生活 文化와 관련된 傳統俗信에 대해 文獻考察法과 面接法에 의해 고찰한 本考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목화와 뽕나무는 그 屬性이 陽性으로 취급되어 辟邪나 病魔를 막기 위한 呪術로 많이 사용되었다.
 2. 길쌈, 잠업, 직조에는 “손물림” 의식과 같은 숙련된 기술획득과, 작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俗信이 주류를 이루었고 특히 길쌈에는 順産과 多産을 祈願하는 呪術이 많았다.
 3. 衣服製作, 服飾管理와 着裝관련 俗信으로 上下區別 및 序列意識, 男尊女卑思想, 勤儉節約意識등 儒敎思想의 영향을 받은 禁忌·呪術이 많았다. 한편 버선과 신은 惡鬼나 病魔를 막기 위한 呪術로 이용되었다.
- 이상과 같이 衣生活 文化에 나타난 俗信은 주

로 呪術, 禁忌, 豫兆의 성격울 지니고 있었다. 또한 傳統 俗信에는, 삶의 知慧와 교훈이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질 높은 예능적 감각이 응해되어 있었음을 本 研究의 結果에서 알 수 있었다.

資料의 限界로 인해, 本考에서는 다루지 못한 染色이나 傳統洗劑에 관련된 俗信도 研究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되며, 아울러 現地調査가 좀 더 組織的으로 이루어져서 文獻記錄에 나타나지 않은 民間信仰 發掘 作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衣生活關聯 俗信의 地域別 特性 比較研究도 좀 더 體系的으로 행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參考文獻

1. 조효순, 「한국복식 풍속사」, 일지사, 1996.
2. 김의숙, 이창식, 「민속학이란 무엇인가」, 청문각, 1996.
3. 金泰坤, 「韓國民間 信仰研究」, 集文堂, 1983.
4. 김성배, 「韓國의 民俗」, 集文堂, 1995.
5. 崔吉城, 「韓國 民俗學」, 새문사, 1988.
6. 崔來沃, 「韓國 民間 俗信語 辭典」, 집문당, 1995.
7. Frazer, S.J. The Golden Bough, 김상일 역, 「황금가지」, 을유문화사, 1996, pp. 37-81.
8. 박동애, (여, 62세, 서울 광진구 중곡동 97번지), 1997. 7. 21.
권선중, (여, 63세, 전남 장흥군 유치면 오복리), 1997. 7. 30.
9. 박갑분(여, 53세, 서울 광진구 면목동 123번지, 충북 충주시에 25년 거주), 1997. 7. 22.
박선영(여, 69세, 서울 강남구 신사동 96번지, 충북 영동군에 34년 거주), 1997. 7. 20.
10. 이주현 외2인, 앞의 책, p. 220.
11. 이주현 외2인, 위의 책, p. 219.
12. 박동애(여, 62세,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97번지), 1997. 7. 21.
13. 이미귀(여, 60세,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미산 2리 360번지), 1997. 5. 10.
박일단(여, 65세,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102번지), 1997. 5. 20.

14. 정희선(여, 73세,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03번지), 1997. 4. 12.
15. 조순정(여, 72세, 전북 군산시 라운동 현대아파트), 1997. 7. 2.
16. 오현성(여, 65세, 경기도 과주군 금촌읍 치동 74번지), 1997. 4. 13.
17. 권선중(여, 63세, 전남 장흥군 유치면 오복리), 1997. 7. 30.
박동애(여, 62세,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 97번지), 1997. 7. 21.
18. 박정우(여, 85세, 서울 광진구 중곡동 101번지), 1997. 7. 22.
19. 박일단(여, 65세,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102번지), 1997. 5. 20.
20. 양찬숙(여, 72세,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27번지), 1997. 5. 21.
21. 오육란(여, 76세, 경북 안동시 송천1동 489번지), 1997. 6. 3.
전력선(여, 71세, 경북 상주시 북용동 190-2), 1997. 6. 2.
22. 천희진(여, 66세, 경북 상주시 북용동 190-2), 1997. 6. 2.
23. 박일단(여, 65세,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102번지), 1997. 5. 20.
24. 서경주(여, 70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 104번지), 1997. 7. 2.
25. 양정효(여, 64세, 전북 남원시 도통동 302번지), 1997. 7. 4.
26. 강용권, 앞의 책, p. 173.
27. 박일례(여, 76세, 전북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112번지), 1997. 7. 5.
서경주(여, 70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 104번지), 1997. 7. 2.
28. 양정효(여, 64세, 전북 남원시 도통동 302번지), 1997. 7. 4.
29. 박순애(여, 57세,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740번지), 1997. 8. 4.
30. 「銅鮮의 鬼神」, 앞의 책, p. 281.
31. 배도식, 「한국 민속의 현장」(집문당, 1993), pp.290-293.